



전북·고산농협, 면마스크 만들어 이웃 나눔

전북농협(바성일본부장)과 고산농협(국영석조합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다문화여성) 구성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자체 제작한 면마스크 800여개를 지역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500명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면마스크는 전북농협과 고산농협에서 마스크 원재료 및 부자재 구입하여 고산농협 웹센터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 신동지구대, 범죄우려장소 정밀 진단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 신동지구대는 지역 내 각종 범죄와 무질서에 취약한 장소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협업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여 선제적 범죄 예방 차원의 정밀 진단에 나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철거건물, 공·폐가 등 유동인구가 적고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 중심 인화물질 등 화재 발생요소가 청소년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일탈행위 등 범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빈틈없는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주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을 파악, 세심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주기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전북의 모범의사’

김철승 예수병원장, 전북도의사회로부터 표창 수상

전라북도도의사회가 2020년 정기대의원회 총회 결의에 따라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병원장은 지난 23일 전주병원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전라북도도의사회(회장 백진현)로부터 모범의사회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수상식에서 백진현 회장은 "예수병원 전 직원이 일차 단결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으며 올바른 의사의 길 구현과 의권신장에 대한 공로가 크다"며 김철승 병원장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호흡과 과장에게는 "지역 의료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자문역할로 개원가를 헌신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치하"한다며, 공로장을 수여했다.

예수병원은 올해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가동한 후 2월 25일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호흡기 환자를 전문 진료하는 국민안심



병원으로 지정받아 호흡기 안심진료소, 소아 안심진료소,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이동차량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윤상 기자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민간 ESS 시설 방문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은 지난 23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 박준두 대표 등 관계자와 함께 시설현장을 둘러보며 ESS(전기저장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과 운영 애로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조 사장은 ESS 화재예방을 위한 충진을 하향운전과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ESS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소방서 합열의용소방서, 대대적 방역활동

익산소방서 합열의용소방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예방 방역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4일 합열을 일대에서 이뤄진 이번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느슨해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다.

합열의용소방대 10여명은 다중이용시설 손잡이, 현금지급기(ATM) 등 다수의 사람이 접촉하는 곳을 꼼꼼히 소독약으로 닦아내고, 방역분무기로 바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이들은 면역력에 취약한 아동과 노인이 많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소독과 예방수칙 행동요령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익산=장왕원 기자

호원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 비대면 추진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HINTs: Howon Initiative for New Teaching competencies)'를 6월 8일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는 2016년부터 실시해 온 호원대만의 대표적 교수법 프로그램으로,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대체해 이뤄졌다.

비대면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에 활용되는 콘텐츠는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KOCW(Korea Open Course Ware)에 탑재되어 있는 고품질 자료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생 중심형 수업설계 및 교수방법과 평가방법 등이다.

신입교원 교수법 연수에 참여한 교수들은 "수준 높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체계적인 교수설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내 수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수업 운영 및 대학 내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신입교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람 있는 인생, 참된 인간성, 자립하는 사람'을 양성한다는 설립이념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로 협력하여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정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신입교원들이 비대면 연수를 통해 교육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연구 또는 개발해 교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신입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변경·운영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전 김제지사, 코로나 19극복·지역 상생에 앞장

한전 김제지사 사회봉사단(지사장 리영균, 노조위원장 김기열)은 지난 22일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론의 집(김제시 용지면)을 방문해 손 세정제와 마스크, 지역농산물 기부 등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사론의 집'은 가정에서 보호교육이 어려운 지적장애우 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전 김제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생필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평소 직원들이 급에서 일부 기부해 온 러브펀드를 활용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한전 김제지사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구면에 입소한 대구의 코로나 19 확진자들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했고,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에 손 소독제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65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88-66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5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가공업협동조합, 코로나19 피해 농가 농산물 구매 캠페인 참여

전북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4일 전북삼라코걸 마켓 혁신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300만원을 구매하는 캠페인을 이어갔다. 이날 구매한 농산물은 전북지역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산하 4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난달 26일 전체 조합원 사들과 함께 전북지역 꽃과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가공업협동조합은 1963년 설립돼 60여년 가까이 전라북도의 가구나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작년 18개 조합원 업체와 함께 10억원의 가구 원부자재공동구매와 20억원의 소매수익계약 추진 등 공동판매 실적을 거두는 등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사회의 소외계층을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우리경제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